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5

2015.10.18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오늘의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4

오늘의 주요기사

- 3 목회 칼럼
- 4~5 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7 2015년 향존직 피택자 소개
- 8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10/18(주) 추수감사주일
- 10/25(주) 세례입교식
- 11/1(주) 성찬주일, 사역박람회 시작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비좁은 골목길 비추는 가을 햇살에, 홀로 쪽방 주무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곱다. 서리 내린 머리 다듬고 나면 얼마나 더 고와지실까, 얼굴에 얼핏 홍조가 비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언제 왔었는지 모르게 또 한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2015년 향존직 선거 막 내려

장로 5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17명 피택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2015년 향존직 선거가 지난 11일 2차 선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2~3년 안에 여러 향존직의 임기가 끝날 예정인 가운데, 예년에 비해 많은 참여가 돋보였다는 후문이다.

지난 11일의 1차 투표에는 1,400명이 참여하여 장로 2, 안수집사 11, 권사 9명이 피택 되었고, 2차 투표에는 1,132명이 참여하여 장로 3, 안수집사 7, 권사 8명이 추가로 피택 되었다. “긋은 날씨에 마침 시작한

정신학원의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투표장 상황도 좋지 않았음에도 예년에 비해 많이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한다”고 실무 진행을 맡았던 최영인 안수집사가 인사를 전했다. > 2015년 향존직 피택자 명단 7면

교단소식

“기독교, 미래사회를 향하여 말하다”

〈기독교공보〉창간 7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기관지인 〈기독교공보〉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공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새문안홀에서 “기독교, 미래사회를 향하여 말하다”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앤디 하트로프 교수(영국 OCMS)와 헤닝 브로게만 교수(독일 부페탈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장신대)가 발제자로 나서 각기 다른 콘텍스트 속에서 살펴본 기독교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앤디 하트로프 교수는 영국의 관점에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도전에 대한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세속화 속에서의 물질주의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면서, “신앙적인 개념들과 제도들을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규정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기독교가 사람들의 사고와 삶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안의 중간지도자들(이해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와 성도, 기독교인 경영자, 신학자, 기독교 경제학자들을 중간지도자들로 꼽고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발전된 경제상황이 기독교 신앙을 무너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헤닝 브로게만 교수는 기독교 선교와 세계화 속에서의 경향과 도전 과제들을 짚었다. 그가 진단한 현재의 선교상황은 빈곤과 불충분한 의료혜택, HIV 바이러스와 에이즈, 물 부족, 부패, 악한 정권, 환경오염, 도시화, 대중매체 혁명, 세속화, 근본주의, 성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공존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많은 도전들에 직면해서 하나의 분명한 선교신학을 정립하는 일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영광송으로서의 선교(mission as oikumenical doxology)”라는 개념을 도입해 기독교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에서 장신대 박보경 교수는 한국교회의 젠더 통합적 리더십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발제에서 박보경 교수는 교회 안 리

더십의 수평적 구조 형성을 위해 “젠더 통합적 리더십”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교회 안에서 양성 간의 협력(여성과 남성이 협력을 맺는 리더십)의 정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2014년 성별 격차 지수가 조사 대상 142개국 중 한국이 117위라는 조사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한 박보경 교수는 “한국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허락되고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차별 문화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여성들이 리더십의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성차별의 유리천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젠더 통합적 리더십 형성을 위해 박보경 교수는 영적 리더로서 잠재력이 있는 여성 목회자 발굴, 여성 스스로의 리더십 역량의 증진, 자기연민과 수동성 극복, 바람직한 여성 리더십 모델 발굴 등 네 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줄함울

전국 가을노회 개막
평양노회 분립 예정

‘화해’를 주제로 열렸던 예수교장로회 제100회 총회가 폐막한데 이어 지난 5일 충주노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을노회가 개막됐다.

〈기독교공보〉에 따르면, 오는 11월 9일 김제노회를 끝으로 한 달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이번 가을노회는 제100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 과정을 밟게 되며, 또한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러 가지 정책을 노회 차원에서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헌법 제1편 교리(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와 제3편 권징 등에 대한 수의과정을 밟게 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교리에 대한 개정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권징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헌법 권징 개정안은 총회장이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실시하게 되며, 헌법 교리 개정안은 총회장이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한 후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가을노회에서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양노회가 평양노회와 평양남노회로 분립 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님의교회는 현재 평양노회에 속해 있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0

聖幕器具 (성막기구)中
燈臺 (등잔 대, lamp)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출애굽기 40장 24~25)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기구와 불을 말한다. 접시 모양으로 된 토기에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밝힌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

도, 사람의 양심과 영혼, 구원, 생명, 소망, 약속, 복과 번영, 메시아 등을 상징한다. 이 등불을 켜서 올려두는 기구가 등잔대이다. 성소를 밝히는 등불은 매일저녁 그날 밤을 밝힐 만큼의 기름만 채워졌다. 하나님의 등불은 이스라엘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밝히시고 계심을 상징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燈(등 등): 타오르는 불꽃을 상형화한 火(불 화, 급할 화)에 ‘오르다, 또는 높은 곳’의 뜻을 지닌 登(오를 등)을 합쳐 ‘불을 켜 높은 곳에 올려두니 등불이다’라는 의미의 글자가 되

었다.

★燭(잔 잔): 넘친다는 뜻의 𤇀(상할 잔, 나머지 잔)과 발이 높은 그릇을 상형화한 皿(그릇 명)을 합쳐 ‘액체를 넘치도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잔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臺(누각 대, 돈대 대): 예식이나 좋은 일을 뜻하는 吉(길할 길)과 지붕 또는 뚜껑을 상형화한 冫(덮을 먹, 민갓 머리)과 ‘이르다. 지극하다’의 뜻이 있는 至(이를 지, 지극할 지)의 결합으로 ‘좋은 예식을 위해 지붕을 씌워 지극히 높이 올린 건물이 누각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으니 큰 집의 의미가 있다. 등잔대는 금 촛대로도 표현한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5



늘푸른대학 어르신들 위해
매주 화요일 250여 명
식사준비를 하며 수저를 챙기는
섬기는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깨워주심(Awakening)과 비저니어링(Visioneering)

2015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한 단어는 깨워주심(Awakening)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창조과학 교과서를 만들어 내면 어떨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다녀오면서 점점 희미해져 갔고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그 꿈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질학 분야에 신앙적 담론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권의 지질학 서적과 신앙과 과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비전(Vision)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꿈(Dream)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친구들 앞에서 연습도 해 보았는데, 설교만 하면 회중이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회중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틀로 전달을 하려고 하니 아이들은 지루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

다. 함께 게임방도, 노래방도 갔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시간을 내고 희생하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여전히 있다면 대화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이후 전임(Fulltime)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러한 생각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배경으로 엔지니어(Engineer)가 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책제목이 눈에 띄어서 집어 든 책이 있습니다. “비저니어링(Visioneering)”. 개인적으로 좋아

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비전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신학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체화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험의 조각들이 아닌 그 경험들로 하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룰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김용웅 목사

사역탐방

해외선교팀 사진전

주님의교회 해외선교 역사를 돌이켜 본다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해외선교팀 사진전

지난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님의교회 1층 로비에서 해외선교팀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베트남, 케냐,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Z 국, 통일선교 등 각 비전트립 팀에서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현지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이젤과 족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 선교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곳, 혹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모아 기도와 마음과 헌신과 물질로 함께 하는 일이다. 주님의교회의 선교는 크게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로 나뉘어져 있다.

주님의교회 해외선교팀은 해외선

교분과위 아래 행정총괄, 중보기도, 동남아팀, 아프리카팀, 미주유럽팀, 중앙아시아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뜻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을 구성하여 현지를 방문,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님의교회 해외선교의 역사는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주님의교회 출신 교역자들이 외국으로 파송된 곳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이후 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5년 무렵이다.

현재 해외선교분과위 비전트립팀

총무를 맡고 있으며, 청년 시절이었던 1980년대부터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손영익 안수집사에 의하면, 2005년 “선교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선교 교육이 진행되었다. 해외선교사 몇 분을 초청해서 해외 선교의 실상을 간접적이거나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후 해외선교부가 만들어지고, 2007년 무렵 선교학교가 설립되어 1~2년 운영되다가 뒤에 선교대학으로 발전했다. 이 때 교인들 가운데,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해외선교에 대한 사역을 꿈꾸게 되었다. 해외선교에 대한 이러한 기반 구축 작업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기독교 운동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는 2000년 가을 한국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만 8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한국 최대 선교훈련프로그램이자 가장 기본적인 선교훈련으로 인정받

고 있다.

특히 성경, 역사, 문화, 전략 등 4가지 관점을 통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도와 많은 훈련 참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선교적 삶을 살 것을 결단하도록 도왔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기존 훈련과 차별화된 것은 ‘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단지 선교에 대한 관점을 공부하는 훈련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이며,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이 곧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즉 훈련생들을 성경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성경을 통해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학습하는 훈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50~60명 정도가 총 12주 과정의 어려운 교육을 마치고 선교의 꿈을 다지고 있다.

이날 해외선교팀에서는 사진전과 함께 올해 해외선교분과의 활동상과 비전트립 팀의 결과를 담은 소식지 <땅끝까지>를 발간하여 성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함울함울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④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네 번째로 교회 밖에서 주님의교회에 관심을 주신 두 분의 글을 받았습니다. 글은 접수된 순서로 실었습니다.

이 글, 또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줄함울

발제 순서

①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②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③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④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⑤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⑥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불편한 집을 명예로

“

오늘날 한국 청소년의 3.8%만 기독교를 믿는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교회의 도움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중식비를 지원받으며 희망을 얻는다.

그러므로 주님의교회는 이 땅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 불편한 모든 집을 명예로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다.

”

주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은 교회

‘주님의교회’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앞선다. ‘대강당(김마리아 회관) 및 수련관(김필레관)을 지어 학교에 헌납하고, 정작 교회는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교회’, ‘헌금의 반을 선교와 구제로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의 임기가 10년인 교회’, 실로 주님의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과 제도를 갖고 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말로 건물을 갖지 않기로 하고, 한남동에 이어, 1993년 3월 정신학원 교실을 빌려 쓰면서 교역자실도 갖지 못하고 겨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 학생들 수업을 위해 다시 교실을 정돈하고 비워주어야 하는 그 불편 속에서도, 1998년 10월 대강당을 지어서도 여전히 셋집 살림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주님의교회의 제도와 형편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유일하다. 사

유화, 세습화가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신선함을 교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던져주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주님의교회는 개혁적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교회가 실천한 이것들은 지극히 성경에 뜻을 둔 일이었다. 교회조차 세상적 의로 치닫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신 6:8) 온 것이 마치 교회의 일반 모습에서 새로운 가치를 시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랐다

대강당의 좌석 수는 2,300석이다. 이것은 주님의교회의 필요에 의해 서가 아니었다. 정신학교의 전 학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에 맞춘 것이다.

대강당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학생들은 대강당을 오갔다. 학생들의 화장실보다 훨씬 시설이 좋기 때문이었다. 화장지를 함부로 쓰기도 하고, 그림을 떨어뜨려 깨뜨리기도 했다. 빈 방에 들어가서 어질러놓기도 했다. 방송 장비를 망가뜨려놓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에서 대강당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자고 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입장을 택했다.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십자가라도 보게 되고, 붙어있는 예수님 그림도 보게 되고, 그것이 모르는 사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사회와 학교에 기도와 헌금을 주기만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다. 교회는 사회와 학교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되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義)보다 낮지 못하면(마 5:20)

이제 주님의교회는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 교회 자체와 사회와 연관된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공간의 사용에 대해 학교와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부딪치며, 물러설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아예 교회가 독립된 곳에 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불편이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 늘 옳은가, 그렇지 않다. 믿으나 마나 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욕을 먹는다.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미운 소리하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사람은, 교회는 이처럼 초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어 내듯이 유익으로 만든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의 3.8%만 기독교를 믿는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런 처지에 주님의교회의 도움으로 많은 청소년은 장학금을 받으며, 중식비를 지원 받으며 희망을 얻는다. 정신학원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신앙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든다. 예수님을 모르던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농촌 봉사를 하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 특히 고3의 예배가 가장 은혜롭다.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처럼 영향력 있는 선교는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교회는 이 땅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 불편한 모든 집을 명예로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다. 교회는 베풀기만 해야 한다. 그리고 늘 멋있게 웃어야 한다. 주님의교회를 보는 사람이 희망과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자랑삼는 교회

“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모인 공동체는 결코 세상의 프로필이나 인간의 도와 덕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본질인 주님의 잣대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는 움직이는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교회가 되지 않을까?

”

주님의교회는 내 신앙의 고향

3대 목사님의 부임 이후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교회는 50년이 넘는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따뜻한 마음의 고향과도 같다.

1988년 일본에서 한국 지사의 책임을 맡고 귀국 후 논현동 관세청 인근에 사무실을 얻었다. 매일 시간을 쪼개 사용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인본적인 교회에 대한 갈등과 복음

적이지 못한 인위적인 설교에 대한 회의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 자신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대한 탐방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수요일마다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예배에 참여하였다. 지금 되돌아보면 창피하지만 설교 쇼핑을 하러 다녔다고 봐야할 것 같다.

1992년 어느 날 거래업체를 방문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에 YMCA 언덕에서 정체된 차창 너머 눈에 띄는 글씨가 들어왔다. "주님의교회"였다.

학창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모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지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곳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일까?

그 호기심에 들어간 교회에서의 첫 설교는 마음속을 뒤흔들어 놓았다. 접하는 설교를 통한 말씀은 진한 감동으로 매년 폐부를 찔렀으나 꿀송이처럼 달았다.

수요일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업무적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드시 수요일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동 중에는 차안에서 설교테이프를 들으며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감격 속에 빠지곤 하였다. 그러면서 성경을 대한 시야도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행보가 약5년이 지난 후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등록 후 교우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자족감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당시엔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돌아보면 부끄러움으로 남은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속하여 생활하던 중에 2대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그분과 함께 베트남으로 선교여행을 간적이 있었다.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

는 뭔가 서로 낯설었던 분위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으로 녹아들면서, 서로 다른 교단이란 이질감에서 비롯되었던 어색한 분위기가 해소됨을 느꼈다. 인간이 만든 자신이 속한 교단과 교리라는 닫힌 울타리와 선교사란 아성(我城)들이 말씀앞에 눈물로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1~2대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됨이 감사하였다. 구역장, 봉사부, 그리고 선교부, 안내부에서 열심히(?) 섬겼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건 나로 인한 열심이었지 결코 주님으로 기인함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하나님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감사한 마음 또한 교회에서의 교우들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유쾌적 편안한 신앙생활에 대한 지극히 인본적인 기준으로 인함이었지 결코 주님에 근거함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속에서 처절한 실천(act)의 모습으로 나타남이 없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한 경고

나의 신앙인생에 주님과과의 튼튼한 가교역할을 해주신 목회자가 계신다. 가끔 그분이 전하던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향한 경고적 설교가 생각이 난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이 팽만해 있고, 지나친 외적성장에 목표를 둔 나머지 본질을 잃어가고 있으며, 교회의 규모가 커지거나 목회자의 이름이 알려질수록 교회의 제도와 목회자의 권위(?)를 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황에 대하여 경계의 메시지를 던지곤 하였다.

지금 이러한 한국교회(주님의교회들의)의 수많은 문제점은 그 속에 속

한 나 자신 한 사람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관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주님 따르는 고통을 인내하기를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늘 고통이 동반된다.

주님께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하신다. 그건 세상적 욕망에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말씀)께 두라는 말씀일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따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진리로 삼으려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욕망의 늪 속에 갇혀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며 주님의 말씀을 좇는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I am nothing)”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인 공동체는 주님 이외에 세상적인 프로필이나 결코 인간의 도와 덕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본질인 주님(말씀)의 잣대로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는 움직이는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한 주님의교회의 바른 정체성일 것이다.

박성관 백주년기념교회

지역소식

주차안내부,주방부 2015년 합동 가을 나들이



10월 3일 토요일에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나들이의 즐거움으로 늦잠까지 자며 허둥지둥 차량에 승차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경춘 고속도로를 달리며 설악산을 향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라 이 모임이야말로 항상 긍정적이며 쉽지 않은 봉사를 하시는 봉사팀들과 함께하는 동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강산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늘 세상일과 교회 봉사로 열심인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하루

를 낭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행복이고 추억거리입니다.

단풍이 아직은 이르기는 했지만 가을 하늘의 햇빛을 맞으며 비룡폭포와 흔들바위를 오르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어린 동심의 세계의 바로 그것이며 곳곳의 숲속에서 지저귀는 산새 소리를 들으며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느껴봅니다.

자연의 신비함 속에서 그간의 심신을 풀 수 있다는 고마움에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면서 언제 또 이러한 곳에서 같이 봉사를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볼지 기대해 보

며 봉사의 마음은 늘 긴장되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이었는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후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루의 휴식을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정취에 빠져서 보낸 오늘의 추억은 우리들 삶에서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기에 오늘의 행복이 우리들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며 일행들과의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봉사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성옥환 권사

로템나무

농부의 정성과 포도나무 헌신

봄여름 길고긴 가뭄에 강물은
말라서 바닥까지 드러나고

사나운 태풍은 사자처럼 삼킬
듯 할퀴며 휩쓸고 지나가도

모든 것 녹여낼 듯 용광로 불
길 같은 여름 한낮 피약별에도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을 끝까지
지 지켜내며

가지마다 송이송이 보석 같은
알알들을 풍성하게 매달고

수확하는 가을 농부 기쁨 가득
안기도다.

이상록 집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22

해방 후 재인가 개교



정신 100년 기념 석탑,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정

1945년 해방으로 미북장로회 선교부가 서울로 오며 따라 정신여자학교 기지와 교사가 선교부에 복귀되었다. 1946년 4월 10일 안국동 풍문고 등여자학교(豊文高等女學校)에서 동문회를 열어 학교 복교를 모색하며, 동문회와 서울노회가 협력하여 학교 재건이사회를 조직하였다. 1947년 6월 이사장에 김규식 박사 부인인 김순애, 교장에 김필례를 선임하였다. 성남중학교와 세브란스의과

대학으로부터 학교 건물을 모두 물려받고 1947년 7월에 재인가 개교를 하며 학생을 모집했다.

“조선 여성계에 많은 지도적 여성을 길러내어 왔으나 일제의 폭압하에 아깝게 폐교되었던”(1947.6.6 동아일보) 정신여자중·고등학교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힘찬 서막이 열렸다.

“이 겨레 이 땅, 민족교육 여성교육,

새 교육의 선구
참 자유, 참 평화, 평등 위해 달려온,
백년이 뭐 오래이라,
백년씩 또 백 번,
천년씩 또 천 번 만 번 영원하거라
정신만세 정신 앞에 영광 있거라.”
-정신개교 100주년에 박두진(朴斗鎭)
“정신 백년 만세”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2015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2015년 10월 4일의 1차 선거와 11일의 2차 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한다. 예년과 달리 많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번 선거를 통해, 장로 5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17명이 피택되었다. 이번 피택자들은 소정의 피택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6년 6월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보다 격렬하게 낮은 곳에서 여러 사역에 헌신할 것이다.(가나다 순)

■ 장로



강석인



서준규



유정식



이성준



황용환

■ 안수집사



김진원



김천식



반철수



복향수



신성식



안정수



이명국



이성욱



이일복



이재홍



이정식



장경식



장수호



장순욱



정낙영



정성권



천인성



최명철

■ 권사



강선희



강희정



고경임



길근주



김경미



김경희



김원미



김정애



김진희



목기숙



손태향



오선희



원인숙



유현숙



최미현



최영순



최재춘

아기나들이



윤 명 아 기

2015년 5월 26일생

1. 이름처럼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세상에 밝게 빛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2. 때에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3.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주께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빠 윤연석, 엄마 이지영 / 9월 20일 3부 예배



이예슬 아 기

2015년 6월 2일생

1. 항상 사랑이 넘치며 온유한 심령은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2.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3.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아빠 이복희, 엄마 이효신 / 9월 20일 3부 예배



조하울, 조하준 아 기

2015년 3월 20일생

1. 부모의 뜻과 욕심이 아닌 하울, 하준이를 맡기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잘 양육하게 하소서.
2. 하울이와 하준이의 몸과 마음, 영이 강건하고 맑게 자라게 하소서.
3. 하울이와 하준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4. 하울이와 하준이, 그리고 하음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지원해주는 형제, 자매 되게 하소서.

아빠 조만철, 엄마 고동희 / 9월 20일 3부 예배

‘배달의 함글’ 서비스는 해외에도!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함글함글에서 보내드립니다! 받을 분 주소와 보내드릴 부수를 hamletter@daum.net으로 알려주세요!
함글함글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알립니다

- **교구별 금요기도회**
일시 : 10/23(금) 오후 8:00
장소 : 1교구(초등부실)
- **해외선교 비전트립 사진전**
일시 : 10/11, 18, 25 오전 8:00~오후 4:00
장소 : 1층 로비
- **제14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결혼한 신혼부부
일정 : 11/1, 8, 15, 22 매주일 오후 4:00~7:30
회비 : 커플당 8만원
신청 : 4층 교역자실
문의 : 문희삼 목사(010-4305-1849)
- **주방부 리모델링 설명회 및 간담회**
일시 : 10/18 오후 1:00
장소 : 지하 다목적실
대상 : 안수집사 및 권사 중 희망자
- **녹색팀 주관 친환경 세제 판매**
일시 : 10/18 오전 8:00~오후 3:00
문의 : 이명기 안수집사 (010-6256-1460)
- **교회 규정 제정**
교육위원회, 결혼예식 운영, 장학위원회, 음악위원회 규정 9월 당회 통과
금년 말 신규 제정 및 수정된 규정집 배포 예정
문의 : 박대길 장로 (010-5493-6616)
-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일시 : 10/17~11/7 매주 토요일 오후 2:30
장소 : 3층 초등부실
대상 : 아기부~소년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

교회 달력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주님의교회 출판홍보팀에서는 매년 연말, 탁상형 교회 달력을 기획, 제작하여 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진 오늘날, 달력의 쓸모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한편, 교회력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이 유용한 달력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널리 쓰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016년 달력을 기획하기에 앞서, 달력의 쓰임새와 모양에 대한, 공동체 여러분의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모아보려 합니다. 쓸모와 모양과 소재에 대한 여러분의 기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10월 31일까지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세요.

출판홍보팀